-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안)

❖ 충청 예산지역의 향토문화인 농요와 두레풍장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도민, 공무원, 충남 농악인들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9. 21.(목), 14:00 ~ 16: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재)

○ 주　　제 :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주　　최 : 충청남도의회(복지환경위원회)

○ 참석인원 : 30여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토론 참여자〉

좌　장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	▪ **노정숙**(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5명)	▪ **정웅곡**(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 **이영덕**(향천사 풍물단 단장) ▪ **윤철현**(매헌 윤봉길 월진회 부회장) ▪ **고숙영**(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 사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정재선)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및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 사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14:05~14:10	05′	내 빈 소 개 및 개 회 사	•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0~14:40	30′	주 제 발 표	• 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14:40~14:45	05′	자 리 정 리	(*복지환경위원회 직원)
14:45~15:25	40′	지 정 토 론	• 토론자 4명(각 10분)
15:25~15:45	20′	자 유 토 론	• 발제자, 토론자
15:45~16:05	20′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6:05~16:10	05′	정 리 및 폐 회	• 좌 장(방한일 의원)

Ⅲ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및 국민의례 : 14:00~14:05(05′)

❍ 사 회 자 :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선 전문위원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2 내빈소개, 개회사 : 14:05~14:10(05′)

❍ 주요 내빈소개(사회자)

- 참석 도의원, 의회 및 집행부 간부, 기타 내빈 등 소개

❍ 개회사(방한일 의원)

3 주제 발표 : 14:10~14:40(30')

❍ 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 예산 농요와 두레풍장

4 지정 토론 : 14:45~15:25(40')

❍ 발표순서 ※ 토론자 1명당 10분 정도 발표

정웅곡(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
이영덕(향천사 풍물단 단장)
↓
윤철현(매헌 윤봉길 월진회 부회장)
↓
고숙영(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5 자유 토론 : 15:25~15:45(20')

❍ 발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패널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6 청중 토론 : 15:45~16:05(20')

❍ 토론 주제에 대한 방청객 청중 토론

⇨ 질문자 마이크 제공

7 정리 및 폐회: 16:05~16:10(5')

❍ 진행자 마무리 발언 후 폐회

목 차

주제발표

09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노정숙(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지정토론

27 풍장의 갈 길은?
정웅곡(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31 질 의 서
이영덕(향천사 풍물단 단장)

35 예산의 농요,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토론
윤철현(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

41 예산의 농요 두레풍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숙영(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주제발표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박사 노 정 숙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음악학박사 노정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목 차 >

Ⅰ. 제언의 필요성
Ⅱ.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Ⅲ. 전국 농요의 문화재 지정 현황
Ⅳ. 예산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제언

Ⅰ. 제언의 필요성

예산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며, 차령산맥을 끼고 있어 산지가 많으나 평야도 넓어 쌀, 보리 등의 농사가 발달한 곳이다. 한 해의 생산량을 수치로 논하지 않더라도, 농사가 삶이고 생활이었으며, 농사가 삶의 문화였던 곳이다. 그리고 삶의 밑바닥에 흥을 딛고 사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따라 농사일에 있어서도 흥겨운 노래와 놀이 문화가 공존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산지역의 농요·두레풍장 또한 농사와 함께, 지역민과 함께 오랫동안 향유되어 온 문화임이 틀림없으며, 온전한 모습을 찾아 형태를 복원하고, 문화로서 인정받아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후손의 과제인 것이다.

Ⅱ.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에 관한 발굴과 개발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두레풍장에 관한 다양한 형태가 연구·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농요에 관해서는 연구와 노력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농사일에 있어서 풍장이 제외될 수 없는 만큼, 농요와 두레풍장은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다.

1. 농요(農謠)

1) 개념

농요는 농사노래(農謠), 즉, 논이나 밭일을 포함한 모든 농사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소리를 통칭하는 국악용어로서, 농사의 내용, 소재, 작물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노래다.

이를 활동적(과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대상을 키우기 위한 준비부터 진행되는 과정, 마무리까지 포함하는 노래로, [대상 선정 - 터다지기 - 씨앗 고르기 - 씨뿌리기 - 관리하기 - 수확하기 - 마무리, 평가하기(공유하고 즐기기) - 내년도 농사 준비하기] 까지를 담는 노래이다.

농사짓기 활동에서 살펴보면, [대상 작물 정하기 - 터 고르기 - 씨앗 확보하기 - 씨뿌리기(묘, 모종) - 관리하기(물, 풀 등) - 추수하기 - 결과 공유하고 즐기기(장원질 포함) - 내년도 농사 준비하기] 등을 담게 된다.

2) 구성 및 내용

① 일반적인 농요

농사를 위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과 더불어 부르거나, 작업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거나, 호미나 낫 같은 기구를 제작하며 부르기도 한다. 현재까지 불리었거나 불리고 있는 농요는 논이나 밭에서 일하며 부르는 농업노동요이며 '들노래'와 같다. 〈모내기소리〉·〈김매기소리〉·〈곰배질소리〉·〈밭모종소리〉·〈농부소리〉·〈당패캐는소리〉·〈죽먹이소리〉·〈연밥따는소리〉·〈모찌는소리〉·〈논밭갈기소리〉·〈밭밟기소리〉·〈밭매기소리〉·〈벼베기소리〉·〈미나리캐는소리〉·〈내쫓기소리〉·〈동부따는소리〉·〈꼴베기소리〉 등이 있다.

또, ‘들노래’는 농사의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판에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찌는소리〉, 찐 모를 심을 때 〈모심기소리〉, 논매기가 끝나면 〈김매기소리〉, 세벌김매기가 끝나면 〈장원질소리〉 또는 〈길꼬냉이〉·〈새보는소리〉·〈벼베는소리〉·〈등짐소리〉·〈방아소리〉·〈타작소리〉 등을 부른다. ‘들노래’의 음구성은 각 지방의 민요가 가지고 있는 음조직과 같으며, 그 지방만이 갖는 향토색 강한 토속민요이다.

농요를 포함하는 노동요에는 지신밟기, <흙거름노래> · <소모는 소리> 또는 <메(미)나리소리> · <밭발리는 소리(踏田謠)> · <모찌는 소리> · <모심기소리> · <논매기소리> · <김매기소리> · <벼베는 소리> · <등짐소리> · <바심소리> · <보리타작소리> · <방아타령> · <맷데소리> · <질꼬내기(길軍樂)> 또는 <장원질소리> · <제화소리> 등이 있다.

② 고성농요와 예천통명농요 비교

고성농요와 예천통명농요는 1985년에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같은 논농사를 지을 때라도 지역마다 과정이나 노래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성 소리 비교

구분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제85-1호	국가무형문화재 제85-2호
구성 소리	모찌는 소리_긴등지, 짜른등지 모심는 소리_긴등지, 점심등지, 짜른등지, 해걸음등지 김매기소리_상사디야, 방아타령, 치기나칭칭 도리깨질소리 길쌈소리_물레질소리·삼삼기소리·베틀가	모심기_아부레이 수나 모 심고 나오며_도움소 소리 논 맬 때_애벌매기소리, 상사듸여 논 매고 나오며_방애소리, 에이용소리 집으로 돌아오며_캥마쿵쿵노세 타작할 때_봉헤이 부녀자들이 부르는_삼삼기노래, 베틀노래, 도해따기

③ 예산의 농요

예산군의 농요가 채록·수록된 공식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1985), MBC민요대전-충청남도 편(1993)이 있고, 개인 연구를 위해 촬영한 이걸재 편 음원이 있다. 여기서는 앞의 두 자료에 수록된 노래가 불린 지역과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 2> 지역별 채록한 소리 현황

지명		한국구비문학대계(1985)	MBC민요대전(1993)
예산읍		김옥석 <얼카덩어리>	
삽교읍	두리	김봉석 <검불 날리는 소리> 변숙현 외 <논매는소리-얼카덩어리> 이하수 <만물소리-에야호>	
	창정리		김창교 <모찌는 소리> 김창교 <논매는 소리-어하덩어리> 김창교 <논매는 소리-에야호>
고덕면		문선필 <모심기-방아타령> 김윤태 <모심기-상사소리> 김윤태 <에헤라덩어리> 김윤태 <김매기소리-덩어리> 이승하 <어허라덩어리> 최광덕 외 <만물소리> 박영남 <만물소리> 이승하 <검불날리는소리> 김윤태 <말되는소리>	
광시면 신흥리			윤주병 <논매는소리-상사디야> 윤주병 <논매는소리-으여차뎅이>
대흥면 동서리			노성환 <모심는소리-상사디야> 노성환 <논매는소리-얼카덩어리> 노성환 <보리타작소리>

<표 3> 예산의 논농사소리 종류와 음악적 특징

과정	소리 종류	음악적 특징
준비 작업	지게질소리 말뚝박는소리 가래질소리	‣지게로 나무해올 때, 긴.자진소리, 의미 있는 사설+반복 구호 ‣무너진 논둑에 말뚝 박는 작업 진행시, 단조로운 음정관계 사설, 구호처럼 외침 ‣의미 있는 사설+후렴('넝청가래호'), 육자배기와 경토리 혼합(남부경토리)
본격적 논농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모판의 모를 한줌씩 모아 묶으면서 부름, 강원도 아라리와 비슷한 선율 ‣논에 던져놓은 모를 심을 때 부름, <상사소리>사용, 두 장단 메기고 세 장단 받음, 육자배기토리와 메나리토리 혼합 ‣아시와 두벌시 '얼카덩어리', 만물시 '에야호'
수확	벼터는소리 검불날리는소리 말되는소리	‣자리개질소리, 마주보고 선 양쪽이 동작과 함께 번갈아 한 장단씩 주고받음, 단순 사설과 단순 선율 ‣나비질 소리 ‣"거기 상 받게~", 남부 경토리

예산군의 농사 소리는 준비 작업부터 수확까지 농사의 전체 과정이 "한 틀"로 구성되어 있고, 음악적인 면에서 주변 지역의 음악 어법과 공존하면서도 예산만의 구성진 소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에 한하지 않고 예산군 전체소리 모두를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이 문화유산으로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이다.

2. 두레풍장

예산의 풍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풍장을 치는 상황에 따라 장단을 달리 구성하고, 같은 장단이라도 절기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빠르기를 달리 표현하다 보니 편의상 구분이 되었을 것이다.

본 제언인 <농요·두레풍장>에서는 농요에 관련된 두레풍장으로 한정하여 다룰 것이나, 예산지역에서 행해지는 풍장, 또, 예산 지역민이 표현하는 풍장이, 단순히 치는 장소나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

았을 것이다. 가령, A마을의 풍물패 B, C, D 중, B가 장날 장터에서 치는 풍장과(장단과 흐름), 농사 시작 전 마을에서 치는 풍장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농사와 함께 하는 두레풍장의 경우, 농사일의 효율을 우선으로 하여 신호용, 또는 호흡 맞추기 용, 또, 행렬 중심, 연희를 위한 흥 중심의 장단을 중심으로 엮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터풍장이나 두레풍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편의상의 호칭으로 한정해야지,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풍장의 보편화를 가로막는 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두레와 풍장의 개념

두레는 이앙법의 보급과 더불어 새롭게 확산된 공동조직으로,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앙법에 적합한 노동조직인 두레가 결성되어 촌락 단위로 파급되었다.

두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악과 농기를 가진 점이며, 공동작업, 특히 농사 때나 집짓기 등을 위해 결성되었다. 많은 두레꾼들이 일에 참여하다보니 육성이나 소리로는 통제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두레풍장이다. 즉 작업의 방향과 이동은 좌상이나 공원의 지시를 받은 총각대방이 영기를 들고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본 풍물패들은 그때그때 논풍장과 두렁질굿 등을 올려 풍물로써 두레꾼들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레풍장은 두레노동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고, 풍물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며, 농악, 풍악, 풍물 등으로도 불린다.

2) 구성 및 내용

① 일반적인 두레풍장

두레풍장은 악기, 기수, 잡색 등으로 편성되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잡색이 빠지기도 한다.

② 다른 지역 두레풍장의 비교

<표 4> 세도, 추양리, 금산 두레풍장 비교

구분	세도 두레풍장	추양리 두레풍장	금산 두레풍장
내용	‣동사리 전승 풍물 근간 ‣치배는 악기와 기수로만 구성(기수는 두레기와 영기), 잡색은 포함하지 않음 ‣영기는 두레패가 이동할 때 맨 앞에서 행렬 인도 ‣악기 : 꽹과리, 장, 장구, 북 ‣기본 가락 : 질굿(두렁이 굿), 두마치 가락, 세마치(논풍장)가락, 나비춤가락, 칠채가락, 원칠채, 마당밝기, 반채, 메조지 가락	‣편성 : 꽹과리, 징, 장구, 북, 태평소 ‣논을 매는 게 일차 목적, 치배수 최소화, 4풍장만 ‣장단 : 기본 풍장(길굿, 질굿)은 주로 장소 이동, 잦은마치(삼채, 자진모리), 세마치(늦은마치)는 타 지역 굿거리와 유사 ‣논매고 두레패가 움직일 때 치기 때문에 특별한 진풀이는 없음	‣두레가 나면 징으로 신호 -> 풍물이 약화되었던 시기 ‣진산, 구례 등은 긴 나발 신호 ‣가락 : 이동시 외마치 질굿 장단 -> 중중모리 -> 외마치 -> 두마치 ‣구성 : 농기, 영기2, 꽹과리, 징, 장구, 북, 나발

* 결성농요에는 두레풍장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사진 통해 확인

③ 예산의 두레풍장

예산지역 마을 풍장의 가장 큰 줄기는 두레풍장이며, 이들 중 보부상 풍물은 공주의 전통 가락, 대전의 웃다리 농악과 많이 다르다. 두레풍장은 두레가 행하는 농기고사와 음력 칠월 백중 즈음 행하는 여름 두레 먹는 날 흥겹게 노는 연희 풍장이다.

풍장꾼은 두레풍장을 연주하는 사람이며 두레풍장과 마을풍장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고사풍장꾼은 최고령 어른 풍장꾼이 맡고, 두레 풍장꾼 신입 두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며, 상쇠, 부쇠, 장구, 북, 징, 벅구 등으로 구성된다.

3. 농요와 두레풍장

농사의 과정은 혼자보다 다수의 활동이므로 서로 호흡 맞추기가 필요하다.

농사일을 진행함에 있어 '설렁~설렁~' 리듬을 타며 소리함으로써 일의 속도를 맞추어 작업 능률을 올리기 쉽고 흥을 돋울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악기 소리나 깃발 신호로 전달하기도 한다. 일의 시작을 위해 집에서 농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일을 시작하고, 농사의 과정, 과정에서 호흡을 맞추어 일을 해야 할 경우,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경우 신호 역할이 되며, 속도를 맞추어야 하는 일에서는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 기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농사에서의 풍물은 에너지이고 활력소이다.

북, 장구 등 가죽악기의 울림과 꽹과리, 징 등의 쇳소리로 인해 농요보다 더 강한 도전정신과 소속감, 단결력 등을 느끼게 한다. 경우에 따라 장단을 일부 변형하거나 엮음을 달리하여 지역 색을 나타내고 지역의 단합을 과시하기도 한다. 일을 진행할 때 들려주는 풍물의 일정한 장단에, 일꾼들은 리듬을 타며 작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이거나 구성원 간의 단합으로 단결력이 상승되고, '즐기며 일을 함으로써' 피로도가 감소하여 생활의 질이 유지되기 용이하다. 따라서 농요와 두레풍장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Ⅲ. 전국 농요의 문화재 지정 현황

1. 전국 농요의 문화재 지정 현황

<표 5> 전국 농요의 문화재 지정 현황

[2023.09.05. 기준]

지역	명칭	구성	지정[시기, 번호]	계승자

부산	수영농청 놀이	모찌기노래 김매기노래	모심기노래 보리타작소리	부산 무형문화재 제2호 1972.02.18.	
안동	안동저전 동농요	모노래 도리깨질소리 못터 다짐소리	논맴소리 파래소리	경북 무형문화재 제2호 1980.12.30.	
부여	산유화가	모심는 소리 벼바심소리 노적소리	논매는 소리 나부질소리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 1982.12.	이병호, 박홍남 ->박홍남, 조택구, 김영구
고성	고성농요	모찌는 소리 김매기 소리 길쌈소리	모심는 소리 도리깨질 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1985.12.01.	김석명
예천	예천통명 농요	아부레이 수나 애벌매기소리 방애소리 캥마쿵쿵노세 삼삼기노래 도해따기	도움소소리 상사듸여 에이용소리 봉헤이 베틀노래	국가무형문화재 제84-나호 1985.12.01.	이상휴, 안용충
예천	예천공처 농요	모심는 소리 걸채소리 칭칭이	논맴소리 벼타작소리	경북 무형문화재 제10호 1986.12.11.	양삼억, 이용식
상주	상주민요	모노래 타작소리	논맴소리	경북 무형문화재 제13호 1987.05.13.	이종완->육종덕
해남	우수영부 녀농요	밭매는 소리 방아 찧는 소리 길꼬냉이	보리타작 소리 둥덩애타령 뒷풀이 소리	전남 무형문화재 제20호 1987.08.25.	박양애
강릉	강릉 학산 오독떼기	모심는소리 벼베는소리	논맴소리 타작소리	강원 무형문화재 1988.05.18.	동기달, 김철기, 조원, 조경재, 최찬덕, 윤흥용
대구	공산농요	어사용 망깨소리 긴 논맴소리 논맴 끝소리 괭이말 타는 소리	가래질소리 모노래 잦은 논맴소리 도리개타작소리	대구 무형문화제 제7호 1990.05.15.	송문창
금산	물페기농 요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충남 무형문화재 제16호 1992.08.17.	
충주	중원마수 리농요	절우자 아라성 중거리방아 어화굼실대허리야 진방아(여성노작) 중거리방아(여성노작) 자진방아타령(여성노작) 갈뜯는 노래	진방아 자진방아	충북 무형문화재 제5호 1994.12.30. *지정해제* *2018.05.04.*	지남기->박재석
영동	영동설계 리농요	모노래 두벌 논맴소리	초벌 논맴소리	충북 무형문화재 제6호 1996.01.05.	서정숙
고흥	고흥한적	방애흥게로다	고흥형 상사	전남 무형문화재	정봉주(1~4)

	들노래	잦은 상사등달어라 들소리 산아지곡 질가락	1996.10.14.	박반심(5~7)
홍성	결성농요	모심는 소리(겹상사) 건젱이 가래질 아시논맴 지대기소리 만물소리 장원질소리	충남 무형문화재 제20호 1996.11.30.	최양섭, 최광순
구미	구미발갱이들소리	영남아리랑 어사용 가래질소리 망깨소리 목도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타작소리 치나칭칭나네	경북 무형문화재 제27호 1999.04.15.	김성수->이승원
서울	마들농요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1999.12.07.	
파주	파주금산리민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헤이리소리 상사소리 몸돌소리 우야소리 상여소리 달구소리	경기 무형문화재 제33호 2000.08.21.	
양산	웅상농청장원놀이	입장 망시매논매기놀이노래 품평회 지신밟기 쾌지나칭칭소리	경남 시도무형문화재 제23호 2002.04.04.	박철수, 이유락, 김필연
제주	제주농요	밧불리는소리 진사대 소리 마당질 소리	제주 무형문화재 제16호 2002.05.08.	이명숙->김향희, 김향옥
강화	강화용두레질노래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용두레질소리 풍물가락	인천 무형문화재 제12호 2003.11.10.	
순창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물품고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김매기소리 장원질소리	전북 무형문화재 2005.03.11.	이정호
강진	신전들노래	보메기소리 못자리소리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전남 무형문화재 2005.12.27.	이만동->안복순
속초	속초도문농요	논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벼베는소리 볏단세우는소리 벼타작소리 벼드리는소리	강원 무형문화재 2007.02.23.	
대구	달성하빈들소리	들지신밟기 가래질소리 망깨소리 목도소리 타작소리 모찌는소리 논매는소리 칭칭이소리	대구 무형문화재 제16호 2008.04.10.	
고양	고양 김매기 소리	긴 소리 잦은 놀놀이 훨훨이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	
나주	나주	긴모찌기소리 잦은모찌기소리	-	최학봉

	농사짓기 소리	긴모심기소리 마소리 긴덜래기소리 돈들타령 에롱데롱	잦은모심기소리 절사소리 잦은덜래기소리 뜰모리		
옥구	옥구들노래	만경산타령 자진산타령	오호타령 외양소리	-	1992년 이후 연행 없었으나 2022년 보존회 발족 후 전승 진행 중
제주	성읍 농사 짓기 소리	밭밟는 소리 맷돌 소리	김매기 소리	-	

※ 전라남도 진도의 농요가 1973년 <남도들노래>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보유자였던 조공례(曺功禮, 1997.04.23.)가 사망함에 따라 지정 해제됨

2. 문화재 지정 과정과 노력

국가 또는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각자에게 알맞은 노력의 과정을 가졌고, 빠른 기간 안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반면, 오랜 기간에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성농요와 예천통명농요, 그리고 충남의 시도무형문화재인 홍성 결성농요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표 6> 문화재 지정 과정과 노력

구분	준비와 진행 과정
고성	[고성농요(고성 농사짓기 소리, 고성들노래)] ‣ 고성읍 주도, 1977년 고성농요전수회 발족 -> 고성지방 농요를 활발히 전수함 -> 1978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문공부장관상 수상) ->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전,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지정 ‣ 기예능보유자 이대수, 김석명 확보
예천	[예천통명농요] ‣ 1979년 전국 민속 예술 경연 대회 출전(대통령상 수상) -> 1981년 경북 지방문화재 지정 ->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전, 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 지정 ‣ 기예능보유자 이상휴, 안용충

홍성	[결성농요] ‣ 1989년 11월 결성 향토민요 조사 -> 1992년 10월 서울대학로의 <농민과 함께 들노래를> 초청 공연 -> 1992년 12월 MBC한국민요 대전편 녹음 -> 1993년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대통령상 수상) -> 1993년 11월 결성농요보존회 구성 -> 1996년 11월 충남 시도무형문화재 제20호 지정 ‣ 기예능보유자 최양섭, 최광순 ‣ 가창자와 동네 유지에 의해 재현

3. 보존 계승의 가치를 지니기 위한 필수 요소

문화는 문화 자체로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주하게 지나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버려지듯 잊히도록 둘 수 없는 문화유산도 있다. 특정 문화가 보존 계승의 가치를 지니고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문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기관의 인정 이전에 이를 접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지역민에게서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 문화를 지키고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와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한두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연구물로만 이용되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관련자와 관계기관들이 협의·연구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Ⅳ.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제언

예산의 농요·두레풍장은 예산의 지역민과 함께 내려온 문화이다. <농요·두레풍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공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그 위에 관련자와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내용의 당위성을 근거로 문화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초 자료를 찾아 형태를 복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을 비롯한 노래, 장단, 음악 등의 요소가 명확히 갖추어지고 정확히 채록, 채보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해당자에게 자료 고증을 받거나, 심층 학술대회를 통해 문화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검증받아야 한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오염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복원, 구성이 필요하며, 자료의 진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당위성을 전제로 한 자료의 홍보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예산지역에서 불린 농요, 또, 농요와 함께 한 두레풍장은 예산 지역민에게 먼저 돌아가 포용되어야 한다. 예산 지역민을 포함한 '널리 알리기'를 기획함에 있어, 일회성 행사의 보여주기로만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회성 행사도 이용되어야 하며, 체험코너, 농요학교, 두레풍장교실 등을 통해 지역민과 참관자들이 체험·체득하여 보편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계승자를 포함한 전수자와 이수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조상 세대에서부터 '가계로 이어져 내려온 계승자'는 발굴되지 않더라도,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의 각 악기에 능통한 전문인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위한 학습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초중등학교와 지자체 산하 기관, 각 마을 회관 등에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단순 체험성 학습을 희망하는 신청자'부터 전수자, 이수자까지를 포함하는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의 장 마련을 통해 계승자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넷째, **'되고자 하는 모습'의 조건을 알고 갖추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문화재 지정만을 목표화 할 수는 없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는 문화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문화재 지정처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 그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요·두레풍장보존회>나 <문화재지정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고, 타 지역, 타 보존회의 선진 사례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인정 방법이 대회 입상이라면 그 대회의 성격과 참여 조건에 맞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외침과 노력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굴, 계발, 보존, 계승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도 없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를 찾아 재현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 허상을 좇는 일이 될 수 있고, 한두 번의 시도 후 포기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도전보다는 『선조들의 생활 문화, 조상들의 삶의 문화가 '버려지거나 잊히는 것'을 막겠다』는 다양한 방법의 외침과,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참고 1 : 결성 농요가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한 과정
※ 참고 2 : 한국민속경연대회[https://www.kfaf.or.kr/2023/index.php]
※ 참고 3 : 예산 농요·두레풍장 관련 참고문헌

※ 참고 1 : 결성 농요가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한 과정

대회 일시 : 1993년 10월 8일
결과 : 종합최우수상 (대통령상) 수상

1993. 1. 4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계획 착수
1993. 1. 18	충청남도 대표로 출연 합의
1993. 2. 17	출연자 명단 확정, 도청에 제출
1993. 3. 18	도 대표로 출연 확정
1993. 4. 12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청규, 부위원장 : 배관제, 조광섭, 이남준, 총무 : 최진순, 이광원, 총지도 : 황성창)
1993. 4. 14	1차 연습, 이후 지속적으로 연습에 착수
1993. 9. 1	후원회 조직 (회장 : 전용설 도의회 내무위원장, 부회장 : 이범화 군의회 부의장)
1993. 9. 14~15	공주 공설운동장에서 총연습
1993. 9. 21	총연습과 종합발표회(결성공고 교정)
1993. 10. 8	청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원 140명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 수상

※ 참고 2 : 한국민속경연대회[https://www.kfaf.or.kr/2023/index.php]

행사명 :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한국민속경연대회
일시 : 2023.9.22.(금)~9.24(일)
장소 : 영광스포티움

※ 참고 3 : 참고 문헌

<단행본>
권태룡.『팔공산 메나리 공산농요와 서촌상여』, 도서출판 학이사, 2017
김헌선, 김은희, 시지은,『부여 추양리 두레풍장』, 부여문화원, 2013.
박종익, 이걸재,『세도 두레풍장·공주 선학리 지게놀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8, 37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민속원, 2011.
안용산, 김영운,『금산물페기농요·결성농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 20호, 충청남도·충청

남도역사문화연구원, 민속원, 2011.
이경엽, 김혜정.『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민속원, 2019.
조춘영,『금산농악』,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53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민속원, 2011.
황인덕 외,『민요·설화·구비전승 말로 전해오는 문학』, 충청남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⑤,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민속원, 2011.

<자료집>
김태균,「조공례의 진도 들노래」, 민요찾아 떠나는 길4, 국토연구원, 1997.
_____,「굳굳하고 해학이 넘치는 경상도 특유의 예천 농요」, 국토연구원, 1998.
노정숙,「농요, 무형문화재 음악」, 웹자료 모음집, 가정가락연구원, 2023.
예농천하,「예산의 두레 풍장(農樂)과 전승실태 - 예산농악보존회·예농천하활동중심 -」, 예산 용대기 놀이 기록화 사업, 2022.
예산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2013.
이걸재,「보부상관련 민요 및 놀이의 전승 현황과 가치 - 보부상 장터(공연) 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제언」, 의당집터다지기 학술대회, 2023.
Keith Howard,「남도 들 노래 : 진도의 무형문화재」, 비교문화연구 제6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지정토론1

풍장의 갈 길은?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정 웅 곡

풍장의 갈 길은?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 삽다리 농악보존회장
정 웅 곡

옛날에는 농악을 '풍장 친다'고 불렀다.

풍장은 명절뿐만 아니라 각 절기마다 막걸리 한잔에 흥겹게 놀아대는 유일한 농촌의 전통 놀이였다. 우리 전통 풍장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전통 구전 음악이다.
더불어 우리 민족의 한과 설움을 풀어주는 놀이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락으로 놀아대던 풍악이지만 지금은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옛 전통이 잊혀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농촌에서 일할 때 어려움과 능률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동할 때면 흥겹게 놀아대면서 한숨을 돌리는 쉼터 역할을 하던 것이 '두레 풍장'이다.

내 고향에도 한마을에 3팀의 농악으로 각각 용대기를 앞세우고 경쟁적으로 무등도 태우고, 고사도 지내고... 한창 풍장이 왕성한 시기가 있었다. 60~70년대 농촌에서 한창 번창했던 "풍장"이 이제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아쉽기만 하다.

'풍장'과 같은 우리 전통예술을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가지고 계승 · 발전시키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밀려드는 현대문화에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우리 고유문화인 '풍장'도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여 "두레풍장" 같은 전통예술을 유지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풍장'도 옛 전통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분들이 전통문화예술인 옛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 누구보다도 풍장을 사랑하는 우리가 보존·발전시키는데 힘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역사와 문화가 깊은 우리 민족의 얼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2

질 의 서

향천사 풍물단
단장 이 영 덕

질 의 서

향천사 풍물단 단장
이 영 덕

1. 먼저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 풍물’과 ‘두레 풍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웃다리 풍물은 가락보가 정리되어 악보로 보급되는데, 두레풍장의 가락보는 정리되어 악보화 되어 있는 지역(단체)가 있는지요? (논산두레풍장,서산두레풍장등)

3. (기타질의)
오늘 여기 예산농악보존회의 구낙서 회장님이 와 계신데, 예산지역 마을 단위로 방문 조사한 두레풍장 가락 채보집이 띠로 있는지요?

지정토론3

예산의 농요,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토론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 윤 철 현

예산의 농요,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토론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
윤철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노정숙 박사님의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발제문을 잘 읽어보았으며 많은 공감을 하였고 향후 어떤 의식과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학술적 근거와 많은 통계자료들을 통해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예산의 두레풍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전승기반 단체로서의 역할과 민속의 전통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발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존 계승의 가치를 지니기 위한 필수 요소로 두레풍장을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로 인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를 접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지역민에게서 먼저 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하며, 문화를 지키며 보존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계승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당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지역민-학계-지자체간에 긴밀하게 협업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발제의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제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예산의 두레풍장이 “내용의 당위성을 근거로 문화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중에 노래, 장단, 음악 등의 요소를 정확

히 채록, 채보되고 고증과 심층 학술대회등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에 대한 시대적 기준은 1985년 한국구비문학대계와 1993년 MBC 충남편 민요대전의 채록된 소리를 기준으로 재현을 하면 문화적 가치로 인정이 되는지요?

전국 농요의 문화재 지정 현황의 시대를 보면 대부분 1972년 부산의 수영농청놀이를 시작으로 2008년 대구의 달성하빈 들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종이 된후 현재까지 15년간 지정 문화재가 없는데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요?

질문 2: 예산 두레풍장의 문화적 가치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요소중에 용대기 놀이가 있는데 용대기도 예산의 두레풍장에 추가 할 경우 문화재 지정에 많은 가점 요인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요? 또한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의 결성농요단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지요?

제안 1: 충남에는 귀족중심의 백제문화와 중요인물 (독립운동가,학자), 종교 (천주교,불교,유교), 농업,유통 (보부상), 해양 문화를 근간으로 서민중심의 내포문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오늘의 발제 주제인 두레풍장도 크게는 내포문화의 농업과 관련된 한가지 중요 요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예산의 농요, 두레풍장을 예산 향토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순차적으로 진전시키기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리며 향후 본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 3: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군 내포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여 만들 수 있는지와 그 경우 예산의 농요·두레풍장도 내포문화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안 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특히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커다란 동기부여를 해 주신 방한일 도의원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지역의 민속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의 두레풍장이 예산군 향토문화재 지정과 충남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또한 서민중심의 내포문화가 백제문화와 함께 충남의 양대 중요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4

예산의 농요·두레풍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팀장 고 숙 영

예산의 농요·두레풍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숙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Ⅰ. 머리말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고숙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예술에 대해서도 업무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조들부터 내려온 전통문화는 보전뿐만 아니라 계승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산은 전통적으로 서부는 예당평야를 이뤄 논농사가 이뤄지고 동부는 차령산맥의 지류가 지나 밭농사가 발달하여 농업을 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두레풍장·농요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한하지 않고 예산군 전체의 소리를 모두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발표로 돌아와서 저는 예산의 두레풍장·농요가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통해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Ⅱ. 예산 두레풍장·농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아직 예산 두레풍장·농요 보존회나 문화재 지정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만약 보존회나 위원회가 결성된다면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두레풍장·농요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보존회나 준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미 지정된 홍성이나 다른 지역 보존회의 선진 사례를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활동을 찾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두레풍장·농요와 관련해서 예산군에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전통 농요 및 용대기 발굴복원 방안 세미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자료조사나 기록화되지 않았던 두레풍장·농요를 기록할 수 있었고 세미나를 통해 후대에 전승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복원, 구성된 자료와 사설, 노래, 장단, 음악 등 농악의 필요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이 기록에 중점을 뒀다면 이후의 사업은 심층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당자에게 고증받거나 문화예술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Ⅲ. 예산의 두레풍장·농요 진흥과 홍보

제가 생각하기에 두레풍장·농요의 진흥을 위해 세미나 개최와 기록화 등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에 비해 홍보나 교육적인 측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혹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두레풍장·농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진행하고 싶거나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이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통예술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계승자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 교실을 실시하거나 22년도 용대기 발굴 사업처럼 예산 지역민들이 농요 복원에 참여하는 등 체험·체득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단순 체험성 학습에서 시작한 두레풍장·농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보편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요와 두레풍장에 이용되는 악기에 능통할 수 있게 전문성을 위한 학습도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에서 계승자뿐만 아니라 전수자와 이수자를 확보하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의 두레풍장·농요는 '전통문화예술'에 포함되며 현행법상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중성 확보, 홍보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문화재 지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국가 또는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결성 농요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고 후에 보존회를 구성하여 지정을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되기 전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 입상은 문화재 지정에 확실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는 한국민속예술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시·군에게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19년도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보부상 난전 놀이'로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농요·두레풍장 분야에

서도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제의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Ⅴ. 맺음말

이처럼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지역의 전통예술에 대하여 보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지자체별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보존회가 만들어진다면 단체의 제도권화, 매년 일정 규모의 꾸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사는 혼자보다는 다수의 활동으로 서로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전통예술의 발굴, 계발, 보존, 계승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예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며, 추후에도 전통예술에 협력할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MEMO

MEMO